

함평군, 귀농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성과크다

2006년 운영 후 총 120여명 교육 이수



함평군이 귀농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면서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 농촌 정착 및 농업창업능력 배양을 위해 군이 지난

2006년 처음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20여 명의 신규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했다.

주로 현장 실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귀농인의 재배 희망 작목을 미리 접수 받아 작목별 지역 우수 농

가를 연결해주는 1:1 멘토-멘티제로 운영된다.

특히 올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 도작, 약용작물, 무화과, 단호박 등 9개 품목 16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A씨(남·43세)는 "신도 농기를 통해 무화과 재배 기술을 습득하면서 작물재배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농산물 가공분야까지 섭렵해 지역 고소득 농업에 한층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지역 농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역귀농 방지는 물론,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준 기자

강진군,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6개 반 8개 분야별 대책반 운영 및 추석 준비 만전

강진군은 민족 고유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하여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 6개 반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상황관리를 하게 되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9월 15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추석 연휴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보내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원활한 교통소통, 재난 및 안전, 지방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보호, 비상진료와 보건의로 체계 구축, 급수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총 8개 분야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

다.

추석맞이 종합대책은 연휴기간 예상되는 군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위축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중된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돼 있다.

우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 배, 밤 등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 29개 품목을 선정해 성수품 가격을 모니터링한다.

연휴기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관련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를 위한 기동청소반도 운영한다.



또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재난·교통·전력·가스·통신 등 유형별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연휴기간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강진군에서는 귀성객들을 위해 고려장자박물관, 다산기념관 및 민화박물관을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게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기초 건강관리 위한 설문조사 실시

무안군은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43일간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1,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야는 ▲보유질환 ▲신체활동 ▲급원 ▲질주 ▲영양 ▲비만 ▲출산·영유아 ▲지역사회 건강환경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항 7개 분야 30문항이다.

설문조사에는 남자606명(39%), 여자930명(61%) 총 1,536명이 참여했다. 그 중 40~50대가 764명(50%)이였으며, 전체 설문자 중 보유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443명(29%) 1위는 고혈압(7.5%) 그 뒤를 이어 지질혈증(7.3%), 당뇨(5.1%), 관절염(2.7%), 골다공증(2.5%)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설문 조사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 건강생활실천 수준, 출산 및 양육방향, 지역사회 건강도시환경문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인식 등 지역주민의 요구와 바람 등을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반영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아리랑몰' 새 단장 기념 이벤트

진도군수 품질인증 등 농수특산물 179개 품목 판매

진도군이 청정 보배섬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득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대폭 강화했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진도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을 새롭게 단장하고, 전문상담사 15명을 배치, 실시간 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아리랑몰'은 진도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로 청정지역인 진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어 맛 좋기로 소문난 농수특산물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진도군수품질인증 등을 인증받은 179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진도아리랑몰' (<http://jindoarirangmall.com>)은 신선하고 품질이 인증된 우수한 상품만을 엄선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진도아리랑몰' 개점 기념 및 추석맞이 이벤트를 9월 15일까지 진행하며, 회원가입 고객 전원에게 진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무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진도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농어민 등 생산자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진도아리랑몰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현재 농수산물 입점업체를 대폭 늘리고 고객이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공제품 등의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매생이 양식 위기극복위해 발 벗고 나서

2020년산 매생이 과일 생산 방지 위한 현장지도

완도군은 최근 고금면과 약산면의 주요 매생이 생산 어촌계를 순회하며 2020년산 매생이 과일 생산 방지를 위해 어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작년 매생이 가격 폭락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었던 만큼 철저

한 사전 지도로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어민들에게 시설량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대 50%까지 시설량을 줄이겠다는 어촌계도 있었으며, 금년도 시설 계획량을 사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3,000채 정도 감소할 것

로 나타났다.

완도군에서는 318여가구가 2,600톤의 매생이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 과일 생산과 전년도 재고량 과다로 인해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의 큰 원인이 됐다. 작년의 경우 산지 가격이 꽤기 당 평균 1,000~1,300원으로 최저 3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영암 氣찬랜드, 올 여름 10만명 방문



영암군은 국립공원 월출산 맥반석에서 흐르는 천연 자연폭포인 기찬랜드가 4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아쉬움 속에 지난 25일 폐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개장식과 함께 유망가수 축하공연을 준비해 피서객과 군민 등 3천여명이 찾아와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주말동안 10천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국내의 정세불안과 경제침체, 장마·태풍에도 불구하고 개장 기간동안 10만명이 찾아와 278억 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예년에 비해 올리는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단위 물놀이 피서객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기찬랜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안전요원과 청소인부 등 1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아르바이트 사업을 통해 70명의 안전요원을 2교대로 배치 운영하고 영암소방서, 이동경찰서,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운영팀을 물놀이장내에 상시 배치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달성했다.

또한, 금년도에는 어린이부터 성인용 물놀이장과 실내수영장,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 화장실 청결상태 유지,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매일 수거 조치, 일몰시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 위생분야에서도 최고의 자랑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남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해남군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토용 3중건설기계로, 해남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대당 166만원(3.5t 미만)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이며,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